



좌 담

도계유통시행 2개월... 무엇이 문제인가?

참석자

이 철우 (임북단지장 : 생산자)

이태근 (고양단지장 : 생산자)

김태웅 (영육농산 이사)

이현정 (영등포시장 : 생계상)

안준홍 (한국가금처리협회 총무부장)

사회 : 4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 도계유통이 실시된지가 이제 두달이 되었습니다.

그간 두달동안의 업계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이현정 : 요즈음 탕고기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도계유통에 따른 유통혼란과 일반 경기침체에 따른 것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1일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평균 150~200수를 농장에서 실어오는 형편입니다.

개중에는 3~4명이 합해서 7~8백수를 실어오는 경우도 있어 일반 생산자는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즈음 생계상인들은 불안한 상태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며 깨끗이 양복을 입고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만 보아도 단속반원이나 아닌지 불안한 형편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이러한 생계판매업자가 2천여명 되는데 유통주체를 계속 이들이 담당하여 이들의 기존권을 보장하고 생활보장이 되어야 모든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 인천 수원등 도계유통이 실시되고 있는 지역을 보아도 과거 생계로 유통하면 기존생계업자의 참여로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간 생계업자들이 정부의 시책에 순응하여 간이도계장을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상업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대로변인 상업지역에 도계장을 설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당초 허가된 시장안에 간이도계장을 설치할 수 있을 줄 알았던 상인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간이도계장이 불가능해서 그간 서울근교 경기도에 일반도계장을 세우려고 1달간다



〈이 현 정〉

녀보았지만 전축의 제한, 공해문제등으로 일반도제장도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능력도 부족하고 간이 도제장이나 일반도제장의 신설도 어려운 형편에서 법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강행하겠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 영육농장은 생산, 사료, 도계처리 등 모두 함께 하는 회사인데 생산자와 처리장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 저희 회사는 축산을 해서 성장했고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처리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무슨법이나 이런 것파는 무관합니다.

저희 판매대리점을 보면 대부분 생계상을 하던분으로 생계를 구입하기가 어렵거나 귀찮은 사람들이 탈모기 대신 쇼케스를 구입하고 닭을 잡아 팔기 싫어 도계품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처리능력은 시간당 1,600수가 가능합니다.

양계 협회에서 발표한 1일 5,000수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처리장이 서울시에 있거나 아니면 서울근교에 있어야 하는것으로들 말하지만 동경의 경우를 보면 동경시내에는 도제장이 없고 대개 동경시내에서 2시간 수송 거

리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제장 입지선정에서 우리도 참고하여야 하겠고 요식업소 납품에는 별 영향이 없으며 도계품의 변질문제가 얘기되는 데 이것도 저온탕적 탈모 생각동 작업시설 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누구든지 언제라도 위탁도계를 요청하면 해줄 것이며 현행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 : 다음 생산자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이태근 : 생산자들은 유통이 잘 안될때마다 불안하기만 합니다.

영업소에는 도계품으로 기왕에 납품되었었으니 별문제가 없으며 가정용은 소비자 홍보를 하여 소비자 기호가 바뀔때까지는 생계를 유통하는 것을 대부분의 생산 업자가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생산된 닭을 사가는 사람이 적으면 횡포할 우려가 있으며 도제장들은 장사를 너무 법에만 의존하려는 것 같아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시간이 대부분 아침 일찍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존 유통업자의 참여기피 도제장의 판매조작 미비, 일반주부의 도계품기피등 문제점이 많은데 법만으로 파연 성공



〈김 태웅〉



〈이 철 우〉

할지 의문입니다.

이철우 : 생산자는 생산품이 원활하게 잘 팔리기를 원할뿐이며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도계 유통이 잘 안되는 것은 지금까지 유통을 담당했던 생계상과 도계장과의 상권 다툼으로 보는데 생산자 입장을 생각해서 서로 대화로 조금씩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농촌에 있는 우리 생산자는 유통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며, 두달동안 시행해 보고 발생한 문제점을 행정당국에서 재검토해서 공정하고 과감하게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도계유통이 안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빨리 해결해야 되며 도계능력이 부족한데 일반도계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 장소를 알선까지 해주는 성의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또 농협은 사료공장만 하지말고 도계장을 지어 운영함으로써 생산자가 농축협에 가입해서 계통 생산출하를 할수 있도록 하고, 현재 간이도계장은 2중의 재산손실과 도계유통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여야 되겠습니다.

사회 : 시행 2개월간 문제점은 발견되었지만 해결은 안되고 있습니다.

도계유통이 잘 안되고 도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안준홍 : 그 이유는 대략 3 가지로 볼수 있는데 첫째, 단속이 미온적이고 계통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처리 협회는 도계유통을 하루 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미온적인 행정단속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대검찰청에 단속을 의뢰하여 경찰이 단속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대상인 위주로 단속하여 5월 말까지는 파출소 단위까지 단속되도록 조치가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할 경우 닭값이 떨어지는것을 방지하고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 처리장들은 농수산부나 축산진흥회와 협조하에 비축사업에 적극협조하고 현재 150t 정도를 자체 비축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상인들의 반발을 들수있습니다.

79년 말에 보아도 생산자가격은 폭락했는 데도 소매가격은 별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도계품으로 유통될때 자연 마진이 적어지므로 반발하며 최종소매업자는 단속이 강화될 경우 도계품 판매대리점 신청이 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자 홍보계몽이 미흡했습니다. 처리협회는 식생활 개선 협회 등과 협조하여 소비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 : 서울시 발표를 보아도 하루 서울시 닭 고기 소비량은 15만수인데 강원 충북의 도계장 능력까지 합해도 10만수를 약간 넘는 형편입니다.

도계능력 부족과 생계상인들의 유통참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준홍 : 별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가 보는



〈안 준 흥〉

도계능력은 165천수정도이며 작업시간을 늘이면 더 할수도 있습니다.

냉동품과 냉장품으로 유통할 계획인데 성수기에는 시간외 작업을 하여 냉동품을 보관했다가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해업소가 시외로 나가는 추세에 도계능력과 공급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서울시내에 새로 신규 도계장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서울시일부만 도계유통할 경우 단속이 불가능해서 전역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리협회는 자체에 밀도계 고발반을 편성(단속 보조요원)농수산부에 보고하였고 차량을 보유하여 기동력도 갖추었습니다. 중상들과 지난 3월중순 서울시 관계관 참석하에 회의를 가진바있고 이들에게 생산자에서 도계장까지 적정마진을 받고 운반을 하기로 합의 하였으나 자ケ지지 않고 있습니다.

처리협회가 별도로 가공시설까지 갖춘 처리장을 정부지원으로 설립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근 : 요는 도계품이 시장에서 처음에는 잘 팔리다 점차 잘 안팔리는데 이것은 제

가 직접 경험해 보았읍니다만 홍보활동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때 팔다 남은 것의 처리 문제등 실제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어려움을 모릅니다.

이현정 : 상품을 소매상에 11시까지 납품해야 하기 때문에 도계장의 가동시간이 제한되어 있는동 문제가 많고 법시행 과정에서 판매조직의 이원화로 도계장과는 서로 경쟁 상태가 되어 대화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수원의 경우도 가까운 수원 시내 도계장을 두고 서울 안성까지 가서 도계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는 소기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태웅 : 생계상인들이 일반도계장을 이용 위탁 도계를 요구해서 유통이 원활히 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이철우 : 생산 유통 판매가 서로 협조 대화로 써 개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회 : 장시간 감사합니다. 법이 시행된지 2개월이 지났으나 그 결과는 그간 텁값이 떨어졌을뿐 그대로 생계로 유통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당국은 그간 2개월간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했을 것입니다.

더이상 생산자나 생계상이 불안에 떨지



〈이 태 근〉

좌담/도계유통시행 2개월 무엇이 문제인가

않고 기존 도계장도 출혈 운영해야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나
타난 문제점을 과감히 시정하는 용단을 내
려야 될것 같습니다.

상품의 품질개선과 가격경쟁 그리고 소비
자 서비스가 뒤따르지 않고 법으로 단속만

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되지 않을 것
입니다.

소비자는 협명하여 아무리 법으로 다스
린다해도 값싸고 품질좋은 것을 택하기 때
문입니다.

(안준홍 씨는 별도 대담한 것임)

도 계 장 현 황

가금처리 협조 자료

도 계 장 명	대 표 자	1일 도계능력	소 재 지
동 신 물 산	이 상 합	30,000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122
한 성 식 품	김 삼 증	15,000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이동교리
영 신 식 품	박 진 숙	15,000	인천시 남구 간석동 617-3
양 주 냉 동	문 종 식	10,000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덕개리
경 남 부 로 이 라	박 중 규	10,000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정리
한 일 냉 동	서 상 복	15,000	경기도 양주군 은현면 상태 2리
경 기 식 품	조 순 희	15,000	경기도 수원시 세류 2동 128
영 육 농 산	김 영 회	20,000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동 183-1
송 전 도 계 장	박 응 식	10,000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용두리
* 성 동 가 금	임 종 빈	2,000	서울시 종구 홍인동 14-23
* 정 산 부 로 이 라	박 성 용	2,000	서울시 종구 황학동 413
* 안 양 부 로 이 라	최 련	2,000	서울시 종구 오장동
* 평 남 상 회	최 윤 식	2,000	서울시
* 호 남 가 금	조 낙 형	2,000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1가 656-478
대 원 물 산	정 남 모	10,000	서울시 영등포구 독산동 304-1
* 베 드 나 무 집	김 영 제	2,000	서울시 성동구
		3,000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중리

* 표는 잔이도계장

月刊養鷄 합본 판매중

79. 1~79. 6
79. 7~79. 12

문의 ☎ (22) 3571~2